

지역 매아리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부안군, 주민참여형 공원관리 구현
변산반도국립공원 자원활동가 모집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주민참여형 공원관리 구현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변산반도 국립공원민의 전문성 있는 자원활동가로 양성한다고 6일 밝혔다.

자원활동가는 자원봉사자와 동일하나 정기적, 지속적으로 연간 70시간 이상 봉사활동 참여와 10시간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자원활동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동·식물과 역사·문화자원 보호, 탐방안내, 공원정책 홍보·캠페인, 환경정화, 기타 공원관리에 필요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 터전 제공과 일반인의 공원관리 참여를 통해 국립공원 보호의식 함양 및 공원원리 정책의 국민적 이해를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자원활동가 신청방법으로는 자원봉사 담당자(063-580-7826)에게 연락 후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 2018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가 지난 5일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절도죄로 형사입건 된 사건과 즉결심판에 회부된 경범죄위반사건 등 총 2건을 심사한 결과, 감경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즉결심판청구와 훈방으로 각각 감경처분을 했다.

이동민 서장은 앞으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경미 사범에 대한 처분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공정하고 절제된 법집행으로 신뢰받은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사건 중에서 피의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선처를 해줌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11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농산물 안전성 확보 · 환경보전 일환

정읍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가에 검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인증에 따른 토양·용수 분석 및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 비용에 대한 인증 농가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인증 참여 확대를 위해 GAP 인증농가의 안전성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지이다. 토양과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출장비, 인증비 등은 제외)를 지원해준다.

액은 실제 분석 비용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과다 요구 여부를 가린다. 신청 장소는 인증농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이

다.

최근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의 농산물 판매코너에서도 GAP 인증 농산물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농가가 GAP 기준에 맞게 농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농산물을 위생적으로 생산·처리하는 것이 농업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농산물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며 농가의 엄격한 관리와 함께 해당 농가의 빠짐없는 신청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성서원 병오창의 제112주년 기념 추모제 개최

정읍시, 김종진 문화재청장 등 100여명 참여

지난 4일 호남의 대표적 사액서원(賜額書院 사적 제 166호, 조선시대에 설립된 서원 가운데 국가로부터 특별히 공인된 서원)인 정읍시 칠보면 무성서원에서 병오창의(丙午倡義) 제112주년 기념 추모제가 열렸다.

무성서원 모현회(회장 이치백) 주관으로 열린 추모제에는 김종진 문화재청장과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등 내빈과 유림, 시민 100여명이 참여하



지난 4일 호남의 대표적 사액서원인 정읍시 칠보면 무성서원에서 병오창의(제112주년 기념 추모제가 열렸다.

여 호국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렸다.

병오창의는 구한말 을사늑약(을사조약, 1905년)이 체결된 이듬해인 1906년 무너져 가는 국권을 되찾기 위해 무성서원에서 면암 최익현, 둔헌 임병찬을 중심으로 800여 의사가 참여한 호남 최초의 의병활동이다.

당시 의병들은 태인과 정읍을 거쳐 순창으로 진출하였으나 일본군이 아닌 조선 진위대가 진압하러 오자 동쪽끼리 싸울 수 없으며 자진해산했다.

이때 불합리한 면암과 둔헌은 대마도로 유배됐다. 면암은 그곳에서 단식으로 순국했고, 둔헌은 고국으로 돌아와 독립운동에 헌신하던 중 일본군에 잡혀 거문도에 유배되고 그곳에서 단식으로 순국했다.

무성서원 모현회는 항일구국 의병들의 호국정신과 의로운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제를 가져오고 있다.

한편 시는 1992년 무성서원에 병오창의(丙午倡義)를 세우려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접수

고창군이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문화이해강사 △주점차질서계도 △EM(균이용농업부산물재생) △국화관광 산업화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2명을 모집한다.

근무는 오는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이며,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이내 근무한다. 급여는 근무 시간당 7530원을 지급하고, 1일 간식비 5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고창군 민생경제과(063-560-2363)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63주년 현충일인 지난 6일 정읍시는 충무공원 충혼탑 광장에서 고창군은 고창읍 덕산리 충혼탑 광장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추모하는 추념식을 가졌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추모 · 정신 기려

정읍시-고창군, 제63주년 현충일 추념식

정읍시는 제63주년 현충일인 지난 6일 충무공원 충혼탑 광장에서 추념식을 갖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정신을 기렸다.

추념식은 나라를 지킨 그분들의 꿈이 지금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과 국회 유성업 의원,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을 비롯 각종 기관단체장과 전물군경유족회를 비롯한 보존단체 회원과 가족, 일반시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경 회복과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명복을 기원하고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면서 애국정신을 기렸다.

추념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에 이어 10시 정각에 울린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분향으로 진행됐다. 또 김시장 권한대행과 유성업의원, 유진섭 정읍시의회의장의 추념사가 이어졌고 한국문인협회 정읍시지부 최혜숙님께서 추모시로 이해인 수녀의 '우리 모두 초록빛 평화

를 낭송했다.

특히 시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추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호가족들이 고령의 나이로 신체가 쇠약해진 점을 감안해 정읍시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아 휠체어를 지원함은 물론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이동을 돕도록 했다.

고창군도 같은 날 고창읍 덕산리 충혼탑 광장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길수 고창군수 권한대행, 최인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보존단체,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묵념, 헌화와 분향, 추념사,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식, 헌시낭송에 이어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소성중학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초청 다과회 가저

소성중학교(교장 권계춘)는 지난 4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34명을 초청해 학교 강당에서 다과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지역 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다과회는 교직원 소개와 권계춘 교장의 특별공연인 기타 연주를 시작했다. 이어 떡과 과일 등 푸짐한 음식으로 마련된 다과회를 가졌다.

또 교직원들이 재활용품을 이용해 직접 제작한 시장바구니를 참여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재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어깨와 등 마사지와 함께 네일아트 봉사를 펼쳤고 학교 홍보 영상도 상영했다.

어르신들은 "학교에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